



천불천탑 180×720cm (2011년 작)

# 내게 판각은 구도의 길

### 개인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성료한 조항숙 작가



누구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다.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11월 28일까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To Find Lost Time)'를 주제로 홍익대 미술대학 박사학위 청구전을 열었던 조항숙 판화가도 마찬가지이다.

조항숙 작가는 "어린 시절 기억들이 미묘처럼 일다가 돌출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천리 밖을 오락가락 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지난 시간에서의 기억들이 내 보물창고 속에 쌓여있다"고 말한다.

조 작가의 창고 속에는 부처도 살고 영무새도 살고 있다. 새장 속에 갇힌 참새와 종이배가 있으며 자유를 찾아 말을 타고 달리는 여인도, 구름도 있다. 이러한 기억의 편린들을 조항숙 작가는 목판에 새겼다. 날듯 말듯 한 기억들을 컬러와 흑백의 대비로

표현했다. 그래서 조항숙 작가의 작품 한 폭은 화려한 색채 이미지로, 다른 면은 흑백의 묵관 산수화로 상반된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다.

조 작가는 회화를 전공했다. 석탑 불상 산사의 풍경을 그려 온 그는 특히 관세음보살상을 그리며 새로운 기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했다. 그런 조항숙 작가가 새롭게 도전한 것이 이번 전시였던 목판화 작업. 조 작가는 전시회에서 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고 그의 작품은 많은 이들의 향수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목판작업은 어떤 색채나 형상을 중점 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닌 목판을 깎아 내면서 형상을 찾아 찍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행자가 하나씩 잡념을 소멸해 도(道)를 구하는 것 같아 저는 판각 작업에 더욱 몰두 하게 되죠."

조항숙 작가의 판화 주제는 종교적이면서도 지극히 개인적이다. 불교의 천불천탑과 불상, 또는 동양화의 관념 산수와 청록산수, 그리고 반라의 누드 여인과 질주하는 말, 반복적 꽃 형상과 영무새 등 의외의 대상들이 만나 테이프이즘(어떤 물건을 일상적인 환경에서 이질적인 환경으로 옮겨 그 물건으

로부터 실용적인 성격을 배제하여 물체끼리의 기이한 만남을 연출시키는 기법)으로 표현된다.

유재길 홍익대 교수는 조 작가의 작품에 대해 "그의 작품은 선사상의 철학적 주제와 인간의 욕망, 사물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 교수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형상화하는 왜곡과 사실의 리얼리티 작업으로 이중적 의미가 공존한다. 천불천탑과 불상, 부처의 형상, 뱀과 꽃, 반라의 여인과 화려한 문양이 혼재된 시공간의 영역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조 작가는 잃어버린 시간과 잃어버린 나를 되찾으려 했다.

"어릴 적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을 때의 추억이 깊게 자리 잡았는지 불교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더라구요. 이것저것 다양한 작품 시도를 하면서도 부처님은 항상 그랬어요. 이번 전시도 부처님의 이미지를 통해 제 자신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의 전시작품 대부분은 이등분으로 분할돼 있다. 액센트처럼 등장하는 영무새는 과거와 현재, 또는 현실과 비현실이라는 두 개의 세계를 연결시키며 나아가 비의도적으로 지나간 기억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 현실적인 진부함을 충격적 주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 했다.

조 작가는 "작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나를 돌아보고 자성을 찾아 삶의 풍요로움을 더하기를 바라며, 새로운 판화형식에 도전하고 판화의 복수성을 지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To find Lost Time' (2011년 작)

# 아니 이런! 전시장에 코끼리가?

### 불교조형미술가 이정윤의 트렁크展

구두를 신은 코끼리들이 사막을 연상시키는 공간 속에서 이동하고 있다. 길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알 수 없지만 코끼리들은 계속 이동한다. 홀로 남은 코끼리들은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편안하지 않은 모습이며 지쳐서 울고 있다. 먹 먹한 마음에 시선을 돌려 천장을 바라보면 선글라스를 쓴 코끼리가 낙하산에 의지해 하늘을 날고 있다. 사막을 벗어나 자유롭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코끼리는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다. 활공비행하는 코끼리는 힘겹게 이동하는 땅 위의 코끼리들과 대비되며 허탈한 웃음을 유발한다.

불교조형미술가 이정윤(31) 작가는 11월 20~30일 삼청동 공아트스페이스 지하 3층 특별전시실에 코끼리들을 주제로 '하이힐' 시리즈와 '코끼리' 시리즈 연작을 선보인다.

이정윤 작가는 코끼리들을 통해 현대사회 속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표현했다. 가정과 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의 자아와 현실상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전시장에는 커다란 코끼리 무리들이 가득하다. 일상에서 탈출하려 하지만 결국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심리를 탈출하려고 발버둥 치는 코끼리를 통해 보여준다.

공기조형물은 현대 도시인들의 복잡다단한 삶과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코끼리는 가벼운 풍선이 되어 영화 속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오르고 무리에서 이탈한다. 하늘을 나는 코끼리는 주류의 어떤 코끼리보다 자유를 만끽한다. 자신 앞에서 이동하는 코끼리의 뒷모습만 보는 코끼리에게 반전은 있을 수 없다.

"모두 같은 길을 가야한다고 누가 말하는가? 인생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칙이 어디 있는가?"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부제인 '트렁크' 또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에서의 벗어나고 싶어하는 일반인들의 심정을 대변한다.

이정윤 작가는 "코끼리라는 동물은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로 알고 있다. 이들이 탈출을 하는 것은 맹수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의미지만 탈출을 통해 이들은 자유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정윤 작가의 코끼리 전은 2011년 8월 부산 송도바다미술제를 통해 바닷가에 선보이며 화제에 올



On the edge 341×200×200cm (2011년 작)

랐다. 당시 여행을 떠났던 코끼리들이 결국 실내 전시장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02)730-1144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 다문화 아트북 선별

### 천태종 명락사, 50여 점 전시

다문화사찰 천태종 서울 명락사에서 '북 아트(Book Art)' 전문과 과정을 수료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교육과정 중 만든 자신들의 책을 선보였다.

서울 명락사(주지 무원·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는 11월 18~24일 서울 인사동 신상갤러리에서 북 아트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은 황준규 씨의 '거미재', '하여여', '아씨방 일곱동무' 등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작품과 이들을 지도한 김영미 씨가 대표로 있는 프로젝트 그룹 '아름다운 북 아트'의 작품 등 50여 점이다.

북 아트 자격증 과정은 명락사가 관악구 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북 아트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개설한 것이다. 총 7명의 이수자 중 2명이 어린이 북 아트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했다.

명락사 주지 무원 스님은 개막식에서 "부처님 가르침 중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생각하며 오갈 데 없던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보듬기 시작한 게 '명락 빌리지'의 시작이었다"며 "이들이 한국을 좀 더 빠르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북 아트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2차 전시전은 12월 1~7일 부산 해운대 갤러리 몽마르뜨에서 열린다. (02)889-7272 노덕현 기자

## 한국석조각 모두 모여

전국의 유명한 석 조각 작가들의 작품전시회인 '제12회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회원전'이 11월 30일까지 안산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한국석조각협회(회장 박주부)의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들이 제작한 국내의 석조각 작품 68점이 전시된다. (041)932-0075 노덕현 기자

## 불교적 모티브로 마음 표현

### 한국불교미술協, 12월 29일까지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출신 작가들의 모임인 한국불교미술협회(회장 김창균)가 12월 29일까지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마음 닦기' 전을 개최한다.

20회를 맞는 이번 전시에는 문명대(한국미술사 연구소 소장), 김창균(동국대학교 미술학부 불교미술전공 교수), 강순형(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장), 이상배(불교조각가), 박경규(선불화공방) 등 41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통불교미술과 현대불교미술을 아우르는 불교회화, 불교조각, 불교공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김창균 회장은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삶을 살아가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감정 등의 마음을 불교적 모티브로 정화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구현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설립 40주년을 맞는 한국불교미술협회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역량 있는 작가와 불교문화재 전문가들로 구성된 1980년대 초반부터 정기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02)2260-8924 이나는 기자

**야생보이차와 칩향의 명가**  
**錦原堂 다茶보普향香**  
**다보양 칩향(선향)**  
 "제향(諸香)의 왕" 칩향 - 순수한 천연향이므로 밀폐된 공간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공기를 흡수하여 정화, 향균작용, 해충근절방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 칩향을 필요로 하는 공부방, 서재, 연구실, 사무실  
 ■ 집안의 가실과 침실, 주방  
 ■ 독서실, 요가원, 수련원, 수행과, 기도실  
 ■ 환자들을 위한 병, 의원, 한의원, 치료원  
 ■ 심신의 안정과 쾌의 원활한 순환이 필요할 때.  
**야생보이차**  
 야생보이차는 해발 1,200m이상 고산지대에서 높이가 2.5m이상 되는 야생교목에 직접 사람이 올라가 일일이 정성스럽게 잎을 채취하여 만든 아주 귀한 차입니다.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검사와 정식통관, 검역절차를 거쳐 제품화한 믿고 마실 수 있는 건강한 차입니다.  
 仙東 茶葉 330g > 99,000원  
 仙東 茶葉 50g > 39,000원  
 仙東 茶葉 50g > 38,000원  
 100g > 65,000원  
 200g > 110,000원  
 ◆ 특징 ◆  
 ■ 야생보이차는 젊은 여성 - 체중조절과 피부미용.  
 ■ 나이든 중년 여성 - 속이 냉하고 손발이 차고 변비가 있을 때 속이 편해지고 손발이 따뜻.  
 ■ 직장인 - 잦은 술자리 회식 등의 숙취 해소에 도움.  
 ■ 학생 등 -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판매원 : 마하를 02)732-1520 www.mahamall.co.kr  
 금원당다보양 070-8758-8847 www.dabohyang.co.kr

**낙엽 밟는 소리에 한 생각 그쳤네**  
**깨달음은 본인 스스로 안다**  
**이제는 방편을 말하리라**  
**생각 다스리는 수행론 출간**  
**간화선(看話禪)**  
 타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좋다. 싫다하는 차별 없는 것이 공(空)에 들 어간 것이나 정진하여 공(空)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상승법인 선(禪)이다.  
 간화선 수행이 생활의 일 치되도록 정전인용과 일상 가운데 증득을 바탕으로 서술한 책이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수행론 강설**  
**031)721-2148~9**  
**무 아 선 원**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염불의 힘!**  
**법공양시 특별 할인!**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오름골 백운(白雲)의 안심과 회암의 예시지 정묵 지음 | 신국판 | 14,000원  
 ■ 한국 서림과 인태사에서 판매  
**염불심매 · 관불심매를 성취한 우리 시대의 원효**  
**정묵 스님이 들려주는 일심정토 염불수행법**  
 법어사 승가대학의 강사 소임을 역임한 정묵 스님은 92년 전수염불 정진 중 염불심매를 얻었으며, 98년 하안거 정진 중에 관불심매를 체험했다. 한국정토학회 이사로서 염불수행과 원효사상 보급에 앞장서 온 스님은 2004년 경남 양산 오룡굴에 정무원(055-375-5844)을 설립, 다음카페 '아미타과(cafef.daum.net/omitopa)'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염불 수행자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비음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불조정맥**  
 Karma Lineage of the Buddhas and Patriarchs  
**佛祖正脈**  
**불조정맥 3개국어판**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러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鏡)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儀)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편찬, 의역하였다. 한영중 3개국어로 출간하여 세계인들이 불법의 정수를 음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